

인종평등 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 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와 보라

본 헌금 전 이야기는 요한복음 1:35-51을 본문으로 한 “와 보라”라는 제목의 설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본문을 택해 설교하는 경우 독립적인 자료로 바꾸어 활용하세요.

많은 회중이 여전히 교회 건물 너머 마당이나 온라인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링크 (UMC.org/SSGive)와 함께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미리 발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여러 문제를 통해 우리는 체계적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가난을 경험하며 더 적은 사회적 자원만이 허락된 지역에 사는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이나 도구의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그 지역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놀라운 장점은 바로 각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연합감리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신앙에 기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 개발자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후원하여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번 보건/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들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연대하여 소년원 수감을 대체하는 지역 기반 대안적 교정 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특히 마닐라 북부 공동묘지(North Manila Cemetery) 지역 가정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고 공화국에서는 연합감리교회들이 초교파적 파트너들과 연합하여 수감 중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 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공동체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한 부에나 비스타 연합감리교회는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이 후원하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지역의 여러 문제와 거의 30년 동안 씨름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에 위치한 이 교회는 온전한 인간성을 위한 범종교 간 운동(The Interfaith Movement for Human Integrity)이라 불리는 이민자 인권 옹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우들은 “나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후원하고, 인권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수감 중인 이민자들을 위해 매월 열리는 기도 집회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온전한 인간성을 위한 범종교 간 운동 및 협력 단체들과 연대함을 통해, 다른 교회 공동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함께 인권 옹호 사역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부에나 비스타 교회의 이민 위원회는 동반자 사역을 시작하여 2016년부터 과테말라에서 온 알바-가르시아 가정에 임시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가정은 이 사역을 통해 알라메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고

또한 미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부에나 비스타 지역 협의회 의장인 리넷 리(Lynette Lee)와 이민 위원회의 새 위원장인 알톤 친(Alton Chinn)은 참여를 증진하고 원주민 지도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후원하기 위한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코비드-19는 이 사역을 향한 우리의 사명감을 바꾸지 못합니다”라고 친은 말합니다. (부에나 비스타 교회의 사역에 관한 더 많은 정보: <https://www.umcmmission.org/share-our-work/news-stories/2020/august/community/multicultural-church-s-history-inspires-support-for-immigrants>)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 자신이 되기까지,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당신은,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이 되기까지,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 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또한, “인생이 던지는 가장 끈질기고 다급한 질문은,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종평등선교주일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자원들을 합쳐 이웃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지 와서 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이 몇 곱절이 되게 하

셔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요한복음 1:50)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세요.

신실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봉헌 기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되돌려 드리오니,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서 주님과 우리가, 또 주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신 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UMC.org/SSGive 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함께 제공된 헌금 봉투를 교회로 우송하세요.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